

북콘서트, 새로운 포교대안 될까?

일반 대중과 소통의 장으로 확대... 대중적 포교콘텐츠 생산

저자와 독자, 그리고 책과 음악의 만남으로 2010년 이후 성행해 온 '북콘서트'. 최근 2~3년 사이 불교계에도 북콘서트 바람이 불며 새로운 포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스님들의 출판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독자들을 직접 만나며 대중적 포교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다.

근래에 북콘서트로 큰 반응을 일으킨 대표적 스님들은 법륜 스님, 혜민 스님, 월호 스님, 정목 스님 등이다. 이미 힐링·명상 등 저서를 펴내며 강연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스님들은 토크와 음악 공연을 더한 북콘서트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저서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펴내고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일감 스님은 "기존 형식과 다르게 책을 읽은 독자들이 직접 느낀 것을 얘기하고 공감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자 했다"며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공감작업을 넘어 불교에 대한 흥미를 이끈다. 딱딱하고 형식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니 더욱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광출판사는 11월 25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여성화기년관 전문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월영 스님의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북콘서트'를 기획 중이다. 청년출가학교 멘토 스님으로 알

려진 월영 스님은 저서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 발간을 앞두고 있다.

월영 스님의 북콘서트는 불광출판사가 기획하는 첫 북콘서트다. 그간 출판기념 특강, 저자초청 강연회 등 형식의 만남 자리를 꾸려왔으나, 친숙하고 진솔한 얘기를 녹여낸 월영 스님의 책 내용이 북콘서트 형식과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책 콘셉트에 맞춰 '너무 서늘지 않은 삶,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야'를

법륜·혜민 스님 등 선두주자
대중 강연서 북콘서트로 이어져
음악, 토크 등 어우러져 '오감만족'
"기존 사찰문화와 접목해야"

주제로 삼아 청년출가학교 학생 및 독자와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가수 박강수, 테너 안세권, 중국 현악기 '얼후' 연주자 유기비 등 공연 및 염불수행 등 무대도 펼쳐진다.

김대현 불광출판사 마케팅부장은 "북콘서트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져 독자들이 더욱 풍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데 강점이 있다"면서 "특히 스님들의 북콘서트는 스님들 책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장이다. 불교에 대



일감 스님은 저서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펴내고 지난 8월 21일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호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책 홍보에서 벗어나 진솔함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라며 "신선한 소재와 이야기거리들은 현재 인지도가 높은 스님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북콘서트가 지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포교 전략으로 내세우기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책 홍보에만 치중돼 실질적인 포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조계종출판사 이상근 부장은 "북콘서트는 초반 판매율을 높이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만, 불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포교효과가 있다고 하

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부장은 "일반 출판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북콘서트가 불교계로 들어와 포교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 불교 문화와 접목시켜야 한다"며 "요즘 활성화된 산사음악회에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북콘서트를 구성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사찰에선 콘텐츠 확장 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 최근 진행된 '오대산 문화축전'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 제시했다.

지난 10월 9일~10월 18일 오대산 월정사 일원에서 펼쳐진 '오대산 문화축전'은 인형극, 산사음악회, 탐돌이 공연 등과 함께 특별행사로 '오대산 책 읽는 밤 북콘서트'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전국 조계종 경승 한자리에 모이다

포교원, 10월 29일 '2015 경승초청 세미나' 개최

경찰들을 위해 일선에서 포교를 이끌고 있는 전국 경승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대행 송묵)은 10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5 전국 조계종 경승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포교부장 송묵 스님, 경찰전법단장 월명 스님, 마곡사 주지 월경 스님을 비롯해 박병규 유성경찰서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월명 스님은 "경찰전법단은 경승단 스님들이 법회현황과 포교활동을 공유함으로써 포교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출범했다"며 "오늘 모인 경승 스님들과 경찰 가족들이 밝은 지혜로써 사회 어둠을 거둬내고 상생의 행복정원을 가꿔나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또한 박병규 유성경찰서장은 "불교의 상호 공존, 평화 사상 등은 경찰 업무와 상통하는 점이 많다"며 "경찰발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에 행하는 결과다. 전법을 통한 자비 광명이 온 나라에 퍼져 경찰 및 가족 일동이 부처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아울러 이날 포교원은 전북청 경승실장 원혜 스님, 경기2청 도원 스님, 대구청 중부서 대현 스님 등에 경승 포교를 위해 세운 공로를 치하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박철수 부타코칭 대표의 '부타코칭' 강의도 이어졌다. 박 대표는 포교 방법, 상담 기법, 관계 설정 등에 대해 연설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5 전국 조계종 경승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숙인 위한 의류지원

연꽃생협, 사찰 기도 후 물품 모집받아 노숙인·쪽방촌 전달

겨울맞이에 한창인 요즘, 길거리에 겨울이 다가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와 연꽃생활협동조합이 노숙인 및 쪽방촌 주거민 등을 위해 의류·생필품 지원에 나선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주호)와 연꽃생활협동조합(이하 연꽃생협)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의류 등 지원하는 '연꽃사랑기(가칭)'를 실시한다. 사찰에서 49제, 백중기도, 천도제 등 올린 후 발생하는 속옷·내복 등을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불청과 연꽃생협은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속옷·내복·현우 등 의류와 생활용품을 기부받고 있다. 아울러 기부물품을 현장에서 나눠주고, 격려와 용기를 선물 '연꽃사랑기 서포터즈(가칭)'도 모집 중이다.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서는 연꽃생협 조합원 가입이 필수다. 문의 (02)720-7798 박아름 기자

방생법회, 자살영가 천도 수록대제 봉행

지장재일 맞아, 300여 불자 극락왕생 기원

조계종 방생법회(회장 이진호)는 10월 30일 지장재일을 맞아 한강 수상법당에서 자살과 사고로 한강에 목숨을 던진 영가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수록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주미에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희도 前 육군참모총장, 박일룡 前경찰청장, 김유혁 前 금강대 총장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주미에 의원은 "OECD 국가 중 자살을 1위에 동반자살,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 등이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의 절망감은 크다"며 "불자들이 우리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보듬는 활동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호계원장 지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방생법회 수록대제는 못생명을 모두 살리는 불자들의 순수한 마음이 발휘되는



조계종 방생법회는 10월 30일 지장재일을 맞아 한강 수상법당에서 자살과 사고로 한강에 목숨을 던진 영가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수록대제를 봉행했다.

것"이라며 "지장재일은 죽은 이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진호 회장은 "한강에 투신한 이들이 매년 500여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위로하는 법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방생법회는 2014년부터 수록대제와 방생법회 등을 통해 모연한 기금

을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불교계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태극 승왕으로부터 기증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수상법당에 모시고 불사도 진행 중에 있다. 수상법당은 조선조 초기 효령대군(태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방생과 수록대제를 올린 곳으로 365일 방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경임 교수 '부석사 관음상의눈물' 출판

11월 13일 서울 '목금토미술관'서 출판기념회 열어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눈물>의 저자 김경임 교수가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에서 김경임 교수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는 근거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경임 중원대 초빙교수(前 주미지대사·사건)는 11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목금토미술관 4층에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눈물>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서산부석사사건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불안위원회(이하 부석사관음상불안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념회에는 교목문화연구원모임 'JPC(회장 윤형섭·前 교육부장관)'가 함께할 예정이다.

김 교수의 저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눈물>은 제337회 국회정기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부석사 불상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사실이 입증되면 국내로 반환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여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근 부석사 관음상불안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7월 동조래일상을 일본으로 환부하대 '일본으로 반환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내 사찰이나 단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부석사관음상은 원소유자가 서산 부석사로 명확하다. 김경임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도 불법 반출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관음상을 본래 자리인 부석사로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석사관음상불안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2시 대전시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관음상의눈물' 특별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집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① 초6년 - 고3 재학
- ②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tc.com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①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사과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박사과정	3년	10명	· 여권용사진 10매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② 학교소개

- ▶ 세계최고 1위 명문 국립 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원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 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에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③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시스님 추천자

④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12월 15일까지 수시전형

⑤ 문의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3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중의대 집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